

##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 소식

-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님의 삶과 신앙을 우리의 삶 안에 본받는 복된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 ◆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매주 금요일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행위인 성시간을 미사 후 거행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셔서 예수성심의 은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6월 5일 (예수성심의 유래에 대해서)
  - 6월 12일 (예수성심 안에 있는 나)
  - 6월 19일 (예수성심 안에 있는 우리)
- ◆ 첫영성체 가정교리 신청
  - 신청: 매주 주일 미사 후
  - 담당자: 이호근 라파엘 형제님
- ◆ 구역별 가정 면담
  - 일시: 주일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내 신부님 집무실
  - 면담순서: 황석두 구역, 이호영 구역
  - 지참물: 교적, 교무금 약정서, 신앙현황서
- ◆ 김제준 구역모임
  - 일시: 6월 6일(토) 저녁 7시
  - 장소: 구역장 자택

- ◆ 클리블랜드 한인천주교회 신앙학교 안내
  - 일시: 6월 17(수) - 6월 21 일(일)
  - 장소: 클리블랜드 한인 천주교회
  - 강사: 박용수 바오로 외 3인
  - 신청비: 30 불(부부 50 불)
  - 신청방법: 김성인(카타리나) (330) 265-3158 kimsoungin@gmail.com
- ◆ 친교 준비 봉사자
  - 5월 31 일: 최영찬 6월 7 일: 김오경
- ◆ 5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제준 구역
-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주까지 모금액은 \$900 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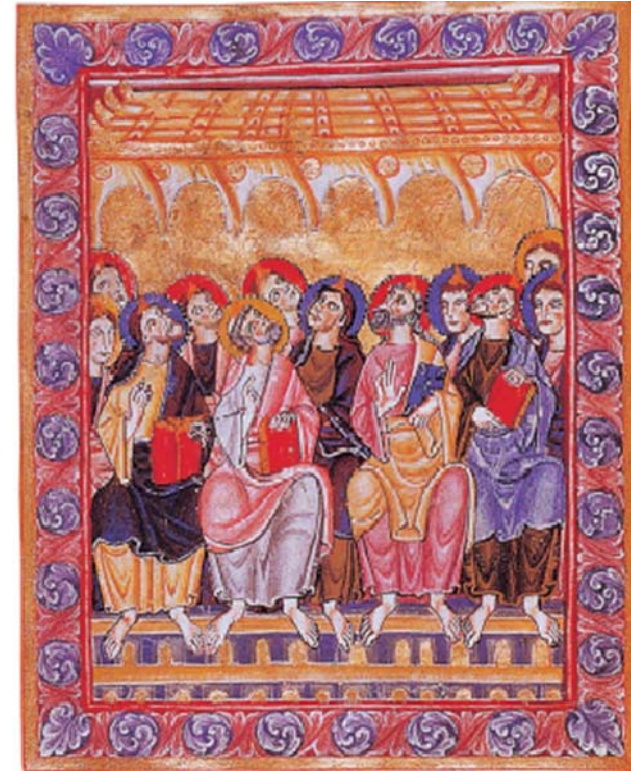
주 일 헌 금	\$682.00
교 무 금	\$588.58
감 사 헌 금	\$20.00

- 교무금: 최예리 정동완 최준표
- 감사헌금: 최예리



##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성령 강림 대축일 May 31, 2009



< 성령강림 >

11세기, 채색삽화, 폴케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미국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제 1 독서 사도행전 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기 시작하였다.”

화답송

주님, 달-신 숨 를 보내시-어 온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 소 세.

제 2 독서 코린토1서 12,3c-7.12-13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 음 요한 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423단 33명
이호영	325단 2명	20,569단 136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325단 2명	2/22/04 - 5/24/09 (275주)

♣ 총누계: 214,692단 12,770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5월31일	6월7일
해설자	안유신	서경환
독서/봉헌	이호영 구역	황석두 구역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150      ♪ 봉헌: 510  
 ♪ 성체: 180 179      ♪ 파견: 493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규성 토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제자들은 스승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렸다. 그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할 강력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였다. 스승의 말씀과 기적의 능력 그리고 그 심오한 해안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상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스승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살해당하고 만다. 스승은 이러한 사건에 대항조차 하지 못하였다. 제자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게 되었다. 스승의 가르침과 행적은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생존일 뿐이다. 그래서 더러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하였다.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일단 아무도 자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숨어야 하는 것이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아무도 눈치 챌 수 없는 숨겨진 장소에... 누군가가 그들이 숨어 있는 집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문을 꽂고 잠가 놓고서...

스승의 죽음과 함께 삶의 의미를 상실한 제자들에게 이 세상과 이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장소에 은닉하면서 희망을 상실한 채 폐쇄적이지 비관적으로 머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 어떤 이들에게조차 신뢰를 줄 수 없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들끼리 외로이 숨어 지낸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설사 누군가가 그것을 눈치 채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사는 모습을 드러내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다. 즉 자신들의 내면으로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과 이웃들로부터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킨다. 그것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장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집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또한 기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곳으로 오리라고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어둡고 폐쇄적인 모든 방어벽을 뚫고 들어와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신다. 예기치 못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발현은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도록 한다. 단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선사한 것뿐만이 아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몰래 숨고 자신을 철저히 은폐하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 21) 세상에 대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신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삶이자 생명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선사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사 받은 성령은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자 생명이다. 성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원천인 것이다.